

## 부고

메리 존 테레스 MARY JOAN TERESE 수녀 ND 4689

캐롤 헬렌 니클라스 Carole Helen NIKLAS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7 년 1 월 1 일 오하이오 신시내티  
서 원 1958 년 8 월 16 일 켄터키 커빙턴  
사 망 2025 년 12 월 16 일 켄터키 에지우드  
매 장 2025 년 12 월 22 일 켄터키 커빙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시편 1 편)**

캐롤 헬렌 니클라스는 존 니클라스와 요한나(부시) 니클라스 부부의 막내로 사랑받으며 태어났다. 언니와 두 형제와 함께 따뜻하고 보살핌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캐롤의 어린 시절은 신앙과 가족으로 가득했다.

캐롤과 노틀담 수녀회와의 인연은 오하이오 체비엇에 위치한 세인트 마틴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마더 오브 머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캐롤은 1955 년 9 월 8 일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착복식에서 메리 조안 테레즈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존 테레스 수녀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에지클리프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이후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녀의 사도직은 수십 년에 걸친 헌신적인 봉사로 이어졌으며, 그중 15 년은 오하이오와 켄터키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활동했다. 이후 종교 교육 담당자로서 여러 지역 본당에서 신앙 양성을 지도하며 사도직을 확장했다. 그 후 8 년 이상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 테크니컬 대학에서 지원 서비스 부서를 통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했다.

수녀의 연민은 청각 장애인 공동체와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사도직 등 여러 전문 사도직 분야로 확장되었다. 2005 년에는 노틀담 수녀회 커빙턴 관구의 문서실 담당으로 사도직을 시작하여 2019 년에 은퇴할 때까지 우리 수녀회의 풍부한 역사를 보존했다.

수녀의 삶은 흔들림 없는 신앙, 배움에 대한 사랑, 타인을 위해 봉사하려는 깊은 투신으로 특징지어졌다. 수녀는 친절과 헌신, 하느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

메리 존 테레스 수녀는 2025 년 12 월 16 일 평화롭게 잠들었다.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수녀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